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인생의 의미를 묻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학인에게 지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눈앞에 학인은 없다.”
학승이 물었다.
“그러시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곧 “안녕히” 하고 헤어지는 인사를 했다.

問 如何是和尚示學人處 師云 目前無學人 云與麼即不出世也 師便珍重

조주 선사에게 학인은 없다. 누가 학인인가? 오로지 부처만 있을 뿐이다. 그런 조주 선사의 뜻을 모르고 학인은 “그러면 선사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렇다. 선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는 없다. 다만 스스로 살아갈 뿐이다. 누가 물으면 대답해주고 묻지 않으면 조용히 풀이 돌아나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헤아리며 살아간다. 인생의 의미를 묻지 말라. 인생의 의미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조사의 뜻[祖意]과 교리의 뜻[教意]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주 스님은 주먹을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도 그것이 있으시군요.”
스님은 모자[주먹]를 내려놓으면서 이르기를

“자네 내게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問 祖意與教意同別 師作拳安頭上 云和尚猶有者箇在 師?下帽子云?道老僧有箇什?

3천 년 전에 한 원승이에게 길을 물으면 항상 머리에 주먹을 올려놓았는데, 이번에 조주 스님도 조사의 뜻과 부처의 뜻이 다른가같은가 묻는데 머리에 주먹을 올려놓다니, 이제 보니까 그 원승이가 제대로 가리킨 것이었네.

학인이 물었다.
“마음이 머무르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물건이야. 바로 심식(心識)에 사용 당하고 있어.”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하여야 사용 당하지 않겠습니까?”
조주 스님은 곧 머리를 숙였다.

問 心不停不住時如何 師云 是活物是者箇 正被心識使在 云如何得不被心識使 師便低頭
마음은 한 날 한 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것은 심식의 사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것은 그대가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식에 사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견지와 중지로 V자를 그려 보이겠다. 빅토리[victory]라고 생각하지 말라. 적어도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단순한 뜻은 내보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도는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나오기는 하지만 도는 생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학승이 물었다.
“그것은 천연적인 것이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천연적인 것이긴 하지만 도는 그렇지 않아.”

問 道從何生 師云 者箇即生也 道不屬生滅 云莫是天然也無 師云 者箇是天然 道即不與麼

도라고 하면 벌써 형상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 나온 곳은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이다. 그것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천연적인 것은 맞으나 도가 되어 나올 때는 천연적인 것이 아니다. 검은 색이 되었다가 흰 색이 되었다가, 동쪽이 되었다가 서쪽이 되는 등 자유자재로 변하고 바뀐다. 그러므로 선사가 말하고, 걷고, 일하고, 밭을 갈고, 비틀게 걸어가고, 옷을 입고, 세수할 때, 코를 풀 때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잘 보인다. 선사는 도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일상사에 절대 도가 들락거리지 않는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여래에게 위대한 신통력이 있으니 이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인가!

《우다나(自說經)》

인간 붓다, 라는 말이 있다. 고타마 붓다는 인간이라는 말이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한편으로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붓다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붓다를 좋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 붓다, 라는 말을 들으면 새롭게 들린다. 참신하게 느껴진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붓다라는 이미지는 사실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80년대 초반부터 번역되기 시작한 일본의 종교학자 마스터니 후미오(增谷文雄)의 책이 끼친 영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붓다를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재해석했다.

그러나 그 역시 원조는 아니다. 그의 책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해석은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빠알리성전협회”를 만든 리스 데이비스, 독일의 올덴베르히 같은 학자들이 붓다를 인간으로 보는 해석을 내놓았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범정 스님의 역서 《불타 석가모니》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있다. 그 저자 와타나베 쇼코(渡邊照宏)는 독일 유학과 출신이다. 그의 경우에는 인간 붓다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토착화된 불교(호넨, 신란, 니치렌의 불교)까지 매섭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붓다, 라는 불교관을 우리나라에서 좋아라 하신 분은 불교방송(BBS)을 설립한 장상문 거사님이셨다. 대원경사 출판부에서 마스터니 후미오의 책을 옮기고 소개하려 애쓰셨다. 그 뿐인가. 지금 회수와 폐간으로 문제되고 있는 《불교평론》역시, “인간 붓다”의 입장에 서서 대승불교나 한국불교의 여러 현상들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어왔던 평론지이다.

나 역시 어렸을 적에(대학을 들어온 것이 78년이었으니, 그 80년대 초까지), 이러한 인간 붓다의 입장을 충분히(?) 섭취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대승불교 내지 우리 불교의 전통으로부터 오는 영향(影響史) 속에 놓여있었다. 의상, 원효, 보조지눌, 한암 --- 과 같은 스님들 덕분(혹은 때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 붓다’ 론이 불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 초기경전

과 대승경전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었다. 하나의 목소리(一音)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불교관을 나는 일음교(一音教)라 부른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사이에 차이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예컨대 초기경전은 인간적인 붓다가 묘사되고, 대승경전은 신격화된 붓다가 묘사된다. 하지만 초기경전에도 등장하는 붓다의 신통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신통력을 부리는 붓다는 인간 붓다인가, 신격화된 붓다인가?

투나 마을의 바라문과 거사들은 붓다와 비구승단의 방문에 앞서, 우물에 풀과 쓰레기를 가득 채워넣었다. 물마저



그림 · 박구원

마시지 못하게 하려는 저의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아난다에게 “저 우물물을 길어서 내게 가져오너라”라고 말한다. 빈 손으로 돌아온 아난다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한다. 하지만 붓다는 연이어서, “아난다여! 저 우물물을 길어서 내게 가져오너라.” 말씀하신다. 할 수 없이 다시 우물물 간 아난다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말했다.

“우물은 장로 아난다가 다가가 풀과 쓰레기를 모조리 빨아내더니, 우물 속에서는 드뭇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넘쳐흐르고 있었다.”(이 미령 옮김,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민중사, p.140)

신통은, 이렇게, 초기경전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붓다는 인간인가? 신인가? 붓다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㉔

몸·입·뜻으로 짓는 10가지 악업과 선업

업-① 십업설(十業說)

불교에서 업(業, karma)은 일반적으로 업보(業報)라는 말로 통용된다. 업은 의도적으로 지어진 어떤 행위나 일을 뜻하고 보는 범어 ‘비빠카(vipaka)’의 번역으로 다르게 무르익어간다는 의미이다.

다르게 무르익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도적인 행위나 일을 원인으로 해서 그 원인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불자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라는 말을 살펴보자. 상식적으로 선한 행동을 했다면 결과 또한 선한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악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응당 악한 과보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인락과 악인고과’는 원인과 결과가 조금 다르다. 선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즐거움의 과보를 받고, 악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 이와 같이 선(善)이라는 원인이 낙(樂)이라는 결과를, 악(惡)이라는 원인이 고(苦)라는 결과를 낳는 과정을 ‘다르게 무르익어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다르게 무르익어간다고 해서 원인과 완전히 별개의 속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과보를 받기 때문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창조신

[브라흐만]과 그 신을 위한 제식이 규정대로 바르게 행했는지 아닌지에 의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제식만 규정대로 바르게 행하면 그것에 의해 나쁜 운명도 좋은 운명으로 바뀐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 행해지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의 과보 역시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보상으로 나타난다는 인과응보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업보설은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과보를 피하고 즐거움의 과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은 선한행위를 하기에 앞서 먼저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선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해진 것이 바로 십악업(十惡業), 혹은 십불선업(十不善業)이다.

십악업의 근원이 되는 것에는 몸으로 짓는 행위[身業], 입으로 짓는 행위[口業], 생각으로 짓는 행위[意業]의 세 가지가 있다. 이중에 몸으로 짓는 선업에는 살생(殺生)과 도둑질(偷盜), 사음(邪淫)이 해당되고 입으로 짓는 구업에는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욕설이나 함담[惡口], 궤변

[綺語]의 네 가지가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짓는 의업에는 탐욕(貪慾)과 성냄(瞋恚), 그릇된 견해[邪見]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 십악업을 부정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십선업(十善業)이라 한다. 이와 같이 선업을 부정적인 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의해 악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선한 행위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행위, 즉 의업(意業)이다. 불교에서는 의업이 선업과 구업의 근본이 된다는 의미로 의업을 생각의 업[思業]이라 하고 선업과 구업을 생각하고 난 뒤에 행하는 업[思已業]으로 분류한다. 결국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윤리관이 그 행위의 종류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들어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인심이 각박해졌다 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어찌 ‘요즘의 현상’에만 국한되었는가. 이해하기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십악업과 십선업의 의미를 자각하고 악업을 행하지 않으려고만 해도 세상은 한결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日 龍곡대 불교학사사 · 前 본지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고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10월 22일 (월요일) 개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당사자나 가족들이 어떤 영가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법”과 “사주로 심리적인 마음 까지 읽을 수 있는 법” 을 배우게 된다.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일을 보내드립니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